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말교실 : 글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름	박수연
전공	국제통상학과
학번	20250658
참여 프로그램	1-on-1코칭(조재현교수님)

<글말교실, 글쓰기가 낯설지 않다고 느낀 첫 순간>

1. 낯설고 어려웠던 첫 만남

대학교 1학년.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이겠지만, 나에게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는 3수 끝에 대학에 입학했다. 오랜 시간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면서 '글쓰기'는 그저 국어 영역 안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생각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일은 점점 낯설어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공부에 매진하느라, 내 생각이 담긴 글을 써야하는 일은 없었다.

입학 후 필수로 선택해야만했던 글쓰기 수업은 내게 가장 어렵고,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다. 보고서를 쓰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나는 막막함부터 느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쓰고 나서도 이게 맞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글말교실을 소개해 주셨다. 1:1 코칭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한 번 해볼까하는 마음에 신청하였다. 그 프로그램이 나에게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2. 피드백은 나를 움직이게 했다.

글말교실에서는 교수님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피드백을 받았고, 한번은 대면코칭도 받았다. 그 경험은 단순히 글의 잘잘못을 지적받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조, 소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과정 등 처음에 두루뭉술했던 내 글은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메일 주고받음의 횟수가 쌓임에 따라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글이 구체화되었던 점이었다. 학생들의 주제가 다들 다양할텐데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놀랐었다. 관광부분에 대해 주제를 잡아 사례를 들어 작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글을 쓰는 나보다 교수님이 그 사례를 더 분명히 아셨었고, 명확하게 지적해주셨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그만큼 교수님의 열정이 대단하셨다.

3. 초고에서 완성까지, 글의 성장

글쓰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초고에서 완성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초고를 쓸 때는 여전히 손이 더뒀고, 문장이 자꾸 끊겼다. 하지만 교수님과 메일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글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과제 제출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완성도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던 기회였다.

4. 글말교실, 다시 글을 배우는 자리

글말교실은 나에게 '글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 단지 문장을 잘 쓰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쓴 글에 자신감을 갖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인지 내 글을 발표 할 때도 떨리지 않았었다.

이제 글쓰기는 나에게 '귀찮고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과제가 되었다. 나는 내 글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그 가능성을 글말교실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